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집에서 시작해 집으로 끝난다, 라이퍼의 관광 시스템(Leiper's Tourism System)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139/>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떠올리면 대개 바다와 오름, 맛집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집에서 짐을 싸고 항공권을 예약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고, 공항과 비행기를 거쳐 다시 집 현관문을 열 때 비로소 끝납니다. 여행지 한 곳만 보아서는 여행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이렇게 관광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하나로 이어진 구조로 보는 틀이 바로 ‘라이퍼의 관광 시스템(Leiper's Tourism System)’입니다. 라이퍼의 관광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관광객, 관광객이 떠나는 지역, 거쳐 가는 길, 머무는 목적지, 그리고 관광 산업이라는 다섯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호주의 관광학자 닐 라이퍼(Neil Leiper)가 1979년 학술지 『관광 연구 연보(Annals of Tourism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라이퍼가 이 모형을 만든 까닭과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세 지역이 각각 맡는 역할, 그리고 이 모형이 오늘날 관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주는 시사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떠나고 거치고 머무는 여행의 구조, 라이퍼의 관광 시스템 라이퍼의 관광 시스템이란 무엇인